



## “포스코, 미얀마 학살 군부 가스전 사업 완전 손 떼라” 미얀마 연대 1만 서명 전달 기자회견 ... “세계 국가들 참여와 연대 절실” 호소

금속노조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미얀마지지시민모임)이 포스코에 민중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끊으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금속노조는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미얀마 노동자 시민과 연대하는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 뒤에 한국 기업 포스코가 있다”라고 규탄했다.

시민모임과 노조는 지난 4월 6일부터 한 달여간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단절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노조는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고, 투쟁을 결의했다.

시민모임과 노조는 “포스코가 참여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은 군부독재 시절과 군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민간 정부 시절, 쿠데타로 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은 지금도 군부의 핵심 자금줄이다”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경제협력 중단을 계속 요구했다”라면서, “4월



미얀마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는 1만 명 서명 전달 기자회견 Press Conference : Delivering 10,000 Signatures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POSCO, Sever Ties with Myanmar Military!  
2021년 5월 4일(목)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 | 공동주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전국금속노동조합

16일 포스코강관(포스코C&C)은 미얀마 군사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와 관계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이행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는 “미얀마 시민이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인 지 100일이 넘고 있다”라며 “우리는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미얀마 시민을 위해 자금이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미얀마 유엔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핵심자금줄로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미얀마 유학생 마웅 씨는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어제까지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4,000여 명이 체포, 4,000여

명이 구금당한 상태다”라며 “군부의 폭력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들은 군인이 아닌 테러범들이다”라고 규탄했다.

마웅 씨는 “미얀마 국민은 예전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군부가 불법으로 내린 비상사태의 중단은

미얀마 민중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세계 국가들의 참여와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 시민과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돈을 대형 가위로 자르는 상징의식을 벌이며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단절하라”라고 외쳤다. 노조와 시민모임이 포스코에 1만 명 서명지를 전달했지만, 포스코는 받지 않았다.

현재 미얀마 시민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지난 5월 2일까지 사망자가 765명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국경 지역 소수민족 주에 60여 차례 전투기 폭격을 퍼부었고, 5만여 명이 국내 난민이 됐다.

# 복수노조 악용, 교섭 거부가 엘지 정도경영?

## 노조 서울지부, 엘지그룹사 노조 공동행동 선언 ... “엘지는 치졸한 노조 탄압 중단하라”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엘지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교섭 거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소속 엘지 그룹사 노동조합을 한데 묶어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는 5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엘지 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지 그룹사 노동조합들이 반노동자·비민주 엘지를 바꾸는 데 힘 모으기로 결의했다”라며 “엘지그룹사 사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교섭에 즉각 나오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오랫동안 무노조이거나 유명무실 기업노조가 있던 엘지 그룹사 여러 곳 노동자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있다”라며 “고질 병폐 저임금 문제와 구시대 노무관리 때문에 엘지 노동자들이 단결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엘지전자, 하이텔서비스, 엘지하이엠솔루텍, 엘지케어솔루션, 하이프라자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엘지생활건강·코카콜라, 엘지유플러스, 엘지하우시스, 엘지화학, 엘지헬로비전, 엘지헬로비전콜센터, 엘지트윈타워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학섬유식품노조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엘지그룹의 복수노조 악용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2019년 3월 19일 하이텔서비스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3월 29일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가 생겼다. 2020년 6월 6일 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가 뜨자 7월 8일 한국노총 기업노조를 띄웠다. 엘지전자지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이프라자치회도 마찬가지다.

노조 서울지부는 “엘지그룹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가입움직임을 보이면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국노총 소속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나타난다”라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우연이라 보기에 석연치 않고, 사측 노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고광희 노조 서울지부 엘지하이엠솔루텍지회장은 엘지전자 가수리 서비스 업무를 불필요하게 여러 회사로 쪼개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이윤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엘지하이엠솔루텍은 엘지전자 자회사다. 시스템어컨 등 엘지 냉·난방 공조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한다.

고광희 지회장은 자회사 차별과 임금 격차가 심각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며, “사측의 기업노조 지원을 누르고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됐지만, 사측 거부로 교섭을 못 하고 있다. 이게 엘지가 말하는 인간존중의 경영이나”라면서 “말로만 정도경영 부르짖지 말고 일단 교섭에 나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우 노조 서울지부 엘지케어솔루션지회 부지회장은 “엘지 로고를 달고 엘지의 렌탈정수기 등을 방문 점검한다. 엘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엘지제품을 고객 제일 가까운 곳에서 다루는 엘지 노동자인데, 사측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우긴다”라며 “노동위원회가 지회를 교섭 대표노조로 인정했는데 사측은 노동자성 여부를 다뤄야 한다며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김도우 부지회장은 “케어 노동자들은 임금 한 푼 없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엘지는 10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했고, 사측은 이마저 깎으려 한다”라며 “구광모 회장 지난해 연봉 금액을 듣고 놀랐다. 공정하지 않다. 하루빨리 교섭을 열어 엘지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바꾸겠다”라고 결의했다. 구광모 엘지그룹 회장은 2020년 보수총액으로 2019년보다 48%가량 많은 80억 800만 원을 받았다. 노조 엘지전자지회 조합원인 엘지전자 서비스 기사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엘지와 기업노조의 진짜 모습을 봤다. 엘지전자지회에 따르면 2018년 11월 당시 비정규직인 엘지전자 서비스 기사들이 민주노총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측 뒤 엘지전자는 서비스 기사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한국노총 엘지전자노조는 사측 발표에 발맞춰 노동조합 가입을 받기 시작했다.

설정석 노조 서울지부 엘지전자지회 사무장은 “사측은 민주노조가 싫을 뿐이다. 비정규직에 관심 없던 기업노조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듯했지만, 노조 가입 순간 딱 거기까지였다”라며 “정규직 전환을 거치며 경력과 임금을 깡그리 무시당했고, 사측이 금속 10년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계했지만, 기업노조는 관심 없다. 기업노조는 사측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설정석 사무장은 사내 평가제도의 편파성을 제기했다. 설 사무장은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형편없는 평가 점수를 준다. 평가제를 이용해 노·노 갈등과 노동자 간 경쟁을 조장한다”라며 “엘지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세운 노동자들이 단결해 사측이 제멋대로 휘두르는 노동조합 탄압수단인 평가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호소했다.